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전술적 의사소통을 통한 말하기 교육방안 연구

유 용 태*

요 약

이 연구의 목적은 부사관과 학생들의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술적 의사소통에 개념을 규정하고 전술적 말하기 교육 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규정하고 목적-행위-목적달성이라는 단계를 구성하였다. 이를 통해 전술적 의사소통은 인식-이해-배려-행위의 반복을 통해 이루어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효과적인 전술적 의사소통을 위해 반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우다루프 전술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우다루프 전술의 대화를 적용한 부사관과의 말하기 교육은 변화-적용-실현의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학생들에게 대인관계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하고 실행력을 견비하게 하는 교육이다. 이 교육방안은 우다루프 전술의 의사소통을 실현함으로써 대화의 환경적 요인을 객관적 정보로 전환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Communication study of The Tactical Communication Curriculum for Petty Officer in Community college

Yu, Yong-tae*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eek an educational method that bring major improvements of the tactical communication through setting a definition on the tactical communication and developing ways of the communication methods to petty officer majoring students in community college level. The study is formed a concept of the tactical communication based on the tactical soften influence and, set up three steps; Goal - Act - Achieving the purpose. The study clarifies that the tactical communication is formed by repeating three steps of 'Recognition - Understanding - Regarding - Act.' To suggest an efficient way of the tactical communication by reducing the repeating communication steps, the study proposes 'OODA loop' communication. The curriculum of Petty officer major students has three steps, Change - Apply - Present steps, with using the concept of 'OODA loop.' The curriculum method offers a way of improvement state on interpersonal and problem-solving abilities. This education method presents variety developed OODA loop situations to minimize the act step on conversing informations through objective perspective and helping faster decision making process.

Key words : Petty officer major, Educational communication, Tactical communication, OODA loop, Interactive communication

접수일(2017년 9월 27일), 수정일(1차: 2017년 10월 29일),
게재확정일(2017년 10월 31일)

* 단국대학교 초빙교수

1. 서 론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부사관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의사소통을 활용한 말하기 교육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의사소통은 사람들 간에 생각이나 감정 등을 교환하는 총체적인 행위이다. 의사소통은 참가자에게 공감을 형성하게 하며 유기적으로 묶어 공동체 의식을 배양한다. 군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구성원들은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공동체이다. 공동체인 부대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전투의 승리와 직결되며 부대의 유지 및 계승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이다.

부사관은 장교와 병사의 중간적 위치로서 양쪽 모두와 활발한 의사소통을 하며 이에 따라 상부와 하부를 이어주는 다방향의 의사소통을 한다. 부사관의 다방향 의사소통은 공동체의 동질감이나 공동 목적을 원활히 수행하는 능력도 포함된다.[1] 이러한 능력은 부사관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근간이 되는 능력이며 복무경험을 바탕으로 부대 내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

의사소통의 환경은 일차적으로 언어를 통해 이루어진다.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말하기, 듣기, 글쓰기, 읽기는 참여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제를 지니고 있다. 특히, 말하기는 대면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인간의 가장 기초적이고 주된 방법이며 의사소통의 상황에 따라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능력을 총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대화에서 발화자와 수신자는 서로의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공동으로 화제를 바꾸거나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대화는 의사소통 참여자들 상호 간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요구한다. 대화를 통한 의사소통은 비교적 짧은 시간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온다. 즉, 말하기는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즉각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공감을 형성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방법이다.

부사관은 초급지휘자, 부대유지자, 부사관·병의 교육과 훈련, 부대전통유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2] 전문대학 부사관과는 우수한 부사관 자원의 배출을 목

표로 하며 이에 따라 부사관의 역할에 관련된 실질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현재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의사소통과 말하기 교육에 대한 이론적 연구도 미진한 편이다.[3][4]

본 연구는 이론적 탐구를 바탕으로 부사관과의 교과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방법을 규정하고자 한다. 또한, 전문적 의사소통을 적용한 말하기 교육을 모색하여 학생들의 의사소통능력을 보다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전문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전문적 의사소통의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전문적 의사소통을 활용한 부사관과의 말하기 교육방안에 대하여 구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전문적 의사소통 교육 이론과 실질적인 말하기 교육활동을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고찰함으로써 효율적인 부사관과 말하기 교육을 도모하는 것이다.

2. 전문적 의사소통과 의미와 방법

2.1 전문적 의사소통의 의미와 단계

의사소통 전략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방법으로 명확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전문적 의사소통의 개념과 뒤섞여 사용되고 있다. 의사소통 전략과 전문적 의사소통은 그 범위가 다른 것으로 각각의 명확한 개념을 우선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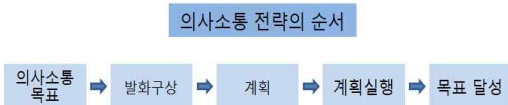
전략과 전문은 군에서 사용되는 용어였으나 일반화되어 일반 용어로 사용이 되는 단어이다. 전략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어 목표를 보다 손쉽게 달성하는 것이다.[5] 이에 반해 전문은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과 방법으로 전략의 하위 개념이다.[6]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전망을 갖는 전략적 목표와 달리 수단과 방법을 통해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전문이다. 전략에는 행동계획이 동반되는 반면에 전문에는 상황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의 방법 및 대응수단이 동반된다.

교육과 관련된 의사소통 전략은 상호작용적 관점과 언어심리학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의사소통전략을 설명한 Tarone(1980)은 제2 언어 학습자와 원어민 화자 사이에 언어구조와 사회

언어학적 규칙이 공유되고 있지 않을 때 서로 같은 의미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의사소통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화자들 간에 의미협상을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Faerch와 Kasper(1983)는 언어심리학적 관점으로 의사소통 전략을 설명하였다. 그들은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식적인 계획을 하는 것이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정의하였다.

Corder(1983)와 Stern(1983)도 의사소통 전략이란 소통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이라고 언급하였는데, Corder(1983)는 화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체계적인 기술을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하였으며, Stern(1983)은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제2언어로 인해 의사소통 상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술을 의사소통 전략이라고 규정 하였다. Dörnyei와 Scott(1997)는 의사소통 전략이란 제2언어의 의사소통 상황에서 일반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라고 언급하면서, 화자가 인지하고 있는 문제들과 관련된 언어를 해결하려는 모든 잠재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라고 정의하였다. 교육과 관련된 의사소통 전략을 단계화 하면 다음과 같다.[7]



(그림 1) 교육 분야의 의사소통 전략

언어의 교육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미협상과 개인의 문제해결을 위한 의사소통 전략은 외국어 교육이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마케팅을 비롯한 경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의사소통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사소통을 통한 의미생성, 내용 및 표현을 통한 관계형성이라는 효과를 중시하고 이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전략의 전제는 예정된 대면적 의사소통이 있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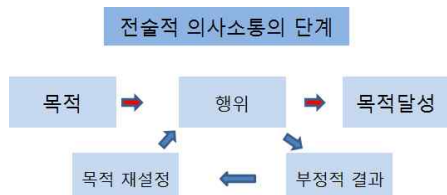
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제 분야에서 활용되는 의사소통 전략의 단계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8]



(그림 2) 경제 분야의 의사소통 전략

의사소통 전략에서 부분적으로 전문적 의사소통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에 전문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따로 규정한 것은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전문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전략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내포하게 되는 것이나 의사소통 전략의 개념에서 지니고 있는 범주와 다른 구체적 범주를 지니고 있다. 전문적 의사소통은 상황에 따른 목적 달성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따라서 전문적 의사소통을 정의하고 그 방법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전문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상황 변화를 전제로 한다. 변화된 상황에 알맞은 의사소통을 통해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적 의사소통은 일반적인 의사소통 단계와 다른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반적인 의사소통의 경우, 목적, 행위, 결과의 일방적 진행으로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 수용하고 의사소통의 단절이 일어나는 단선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 전문적 의사소통은 수신자가 동의할 수 있는 목적을 재설정하고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으로 행위의 순환과정을 지니게 된다. 전문적 의사소통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전문적 의사소통 모형

전문적 의사소통의 발화자는 수신자에게 발화자의

목적은 홍보·선전하는 PR활동을 하며 상황에 따른 실행사항을 전달하여 수신자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9] 전술적 의사소통은 상황을 갈등상태로 만들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협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술적 의사소통은 상황에 따라 수신자와의 관계 유지 및 개선에 초점을 맞춘다.

의사소통 능력의 구성요소는 문법적 능력, 담화적 능력, 사회언어학적 능력, 전략적 능력으로 나누어진다. 의사소통에서 문법적 능력은 언어적 능력에 해당하며 담화적 능력과 사회언어학적 능력은 지위와 역할, 상호작용 목적, 관습적 규준과 같은 문맥 요소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략적 능력은 의사소통이 중단될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이다.[10]

전술적 의사소통은 행위에 몰입함으로써 변화된 상황에 알맞은 발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판단하며 의사소통을 진행하는 것이다. 결국 전술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를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행위의 반복을 통해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고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것이다.

전술적 의사소통의 행위 진행과정은 인식을 출발점으로 한다. 인식은 변화된 상황의 정확한 정보를 합리적 분석을 통해 인식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정보는 의사소통 참여자의 관계, 정보 제공의 방향, 정보 제공의 목적, 수신자의 태도 및 상태, 참여자들의 수 등 의사소통 환경에 대한 정보를 가리킨다

의사소통 변화된 정보가 인식되면 수신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과정으로 진입한다. 전술적 의사소통은 수신자와의 자발적 동의에 따라 성공과 실패로 나뉜다. 따라서 수신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배려하는 발화가 이루어질 때,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가 가능해진다. 수신자에 대한 이해는 수신자에 대한 직접적 정보와 더불어 배경적 정보를 고려하여 수신자의 상태를 이해하는 것이다. 수신자에 대한 배려는 수신자에 초점이 맞춰진 표현이나 태도를 고려하는 것이다.

발화자와 수신자의 관계는 공적인 상황과 사적인 상황에 따른 이해를 필요로 한다. 공적인 상황에서 수신자와 관계가 상하관계 혹은 평등관계에 따라, 아니면 공적인 상황에서 상하와 평등관계가 구별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이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공적인 상황에서 발화자와 수신자가 1:1의 대화를 이어갈 경우,

평등관계에서는 발화자와 수신자는 자유롭게 발언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으나 상하관계에서는 발화자의 발언 기회가 제한되어 있으며 특정 주제가 고정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의사소통 참여자가 등장할 경우, 발화자의 발언 기회와 시간은 더욱 제한되는 환경적 요인이 있다. 공적인 상황의 이해는 수신자와의 관계와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요구한다.

의사소통 참여자들 사이에 관계에 따라 말하기 상황을 생각해보면, 가장 기본적인 말하기는 사적인 상황의 대화이다. 사적인 대화는 정해진 격식이나 대화 참여자들의 범위가 일정한 틀에 짜여 있지 않은 상황이 많다. 특히, 평등적 관계의 경우에는 대화의 주제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대화에 참여하는 누구든 자유롭게 발언권을 나누어 가질 수 있고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 상하관계의 경우, 정보의 제공에 대한 수신자의 태도나 상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보의 제공은 발화자나 수신자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의 참여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의무는 없으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직접적인 목적을 지닌 정보로써의 성격보다는 부차적인 정보로 친분을 쌓기 위한 것이다. 이와 같은 말하기는 개시 및 반응으로 이루어진다. 반응에서 사회적, 문화적, 정감적 의미가 부호화된다. 정보의 정확성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발화자가 수신자의 태도와 상태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있다면, 사적인 상황에서의 의사소통 행위는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를 수월하게 한다.[11]

전술적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에서 진행과정에 따라 효율적인 대응을 하는 의사소통이다. 즉, 상황에 맞춰 수신자의 자발적 동의를 이끌어내어 목적을 달성하는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전술적 의사소통 행위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전술적 의사소통의 행위 진행과정

2.2 전문적 의사소통의 전제와 방법

대면적 의사소통은 공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프레젠테이션, 강연, 연설, 담화와 사적인 상황에서 사용되는 대화로 나누어진다. 공적인 상황에서는 발신자와 수신자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화자의 목적이 앞서서 전달된다. 사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선행발화자의 자극발화에 대한 후행발화자의 대응발화로 구성되어 있다.[12] 전달내용을 교환하면서 순서가 뒤바뀌고 피드백이 빠르며 복잡하게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의 변화를 야기한다.

대화는 인지적 대화, 실행적 대화, 심정적 대화로 나누어질 수 있다. 인지적 대화는 지식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며 실행적 대화는 실제 상황에서 행동과 대처방안을 다루는 것이다. 심정적 대화는 대화 참가자의 정신적, 심리적, 감정적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13] 그러나 실제 대화에서는 이 세 가지 대화를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다.

대화는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활용되는 영향력 기술은 다른 사람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활용하는 행동의 유형을 의미한다. 전문적 의사소통은 빠르고 복잡하며 예측할 수 없게 변화하는 대화에서 참여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강성적 영향력 기술로 권위나 직위 권력의 사용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 강성적 영향력 기술의 의사소통은 상호작용 불공정성을 배태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참여자의 저항을 불러온다. 또한 참여자의 태도는 부정적인 행동과 연결되어 목적과 다른 역할 행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부대 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나 군에서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은 구성원에 대한 사회정서적 수단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확보한 상태를 전제로 한다.

연성적 영향력 기술은 영향력의 주체가 대상에 대해 사회정서적 수단을 통해 영향을 주려는 것이다.[14] 부사관의 의사소통은 인적자원관리자, 조직문화관리자 등의 역할과 연관된 것으로 개인적 호감, 공감대 등의 권력을 사용하여 참여자에게 협력, 자발적 행동,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대는 하나

의 공동체로 부사관의 의사소통은 연성적 영향력 기술을 기반으로 할 때 효과가 크다.

연성적 영향력 기술의 의사소통은 역할과 권위에 따른 의사소통 참여자의 차이를 최소화하며 의사소통 참여자에게 공감을 유발함으로써 긍정적인 행동과 발화자의 호감을 높이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부사관의 전문적 의사소통은 적대적이거나 동화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하여 감화적 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부사관의 전문적 의사소통은 부대의 동질감이나 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 것이기에 연성적 영향력 기술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연성적 영향력 기술의 의사소통은 참여자와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공동체 의식을 형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하는 부사관의 전문적 의사소통은 관계에 대한 혁신으로 공동의 가치를 추구하여 사람과 사람사이의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전문적 의사소통은 목적과 실행을 위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유도하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이는 의사소통에 해석적 차이를 극복하는 토대로 부사관의 초급지휘자, 부대유지자, 부사관과·병의 교육과 훈련의 역할에 적합한 것이다.

전문적 의사소통의 단계는 목적-행위-목적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목적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위가 반복되는 폐회로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지속되며 수신자와 발화자의 의사전달이 교차하도록 부차적 목적을 설정한다. 이를 통해 의사소통 참여자의 공감을 증대시키고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부차적 목적에 따른 행위는 원래의 목적과 연관되며 일정한 방향에서 연결되어 있다.

부차적인 목적은 원목적과 일정한 방향에서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원래의 목적과 부차적 목적의 역할관계는 수신자에 대한 대응발화에 대한 경청을 통해 파악되고 발화를 통해 부차적 목적과 원 목적을 실현한다. 전문적 의사소통은 사적인 상황에서 수신자의 상호작용 불공정성과 저항을 차단하고 자발적 동의를 통해 자연스럽게 목적을 달성하는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2.3 우다루프(OODA Loop)기술의 의사소통

전문적 의사소통이 지닌 폐회로는 대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자발적 동의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폐회로의 특성은 부사관이 대면하는 과제중심 대화나 업무적 의사소통에서 불리하게 작동한다. 부사관은 신속하게 의사소통을 하거나 혹은 의사결정을 하는 위치에 있다. 이에 따라 너무 많은 시간을 대화에 소비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부사관의 과제중심 대화와 업무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의사소통은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과 행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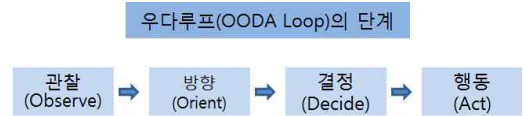
전통적 의사소통은 일정한 구조를 지니고 일정한 규칙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그 규칙과 구조를 밝히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일련의 행동주의 학자들이 언어 내적인 체계보다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행위에 언어 연구의 초점을 두면서 의사소통이 여러 상황맥락이나 사회문화적 측면까지 확장되고 사회문제의 발견과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흐름으로 변하게 되었다.[15] 이러한 의사소통은 그 구조가 단계별로 독립·분리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의사소통은 독창적인 문제해결의 방안을 창출하는 것에 집중한다.

이와 달리 현재의 의사소통은 각 단계가 중첩되어 진행되고 직·간접적 참여자가 동시에 존재하는 상황에서 빠른 소통과 실행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맥락에 따라서 의미를 구성하고, 상호작용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의 실천까지 염두하는 것이다. 현재의 의사소통 교육은 실시간으로 변화하고 굴절되는 의사소통의 현장에서 의사결정과 행동을 요구한다. 이는 즉각적인 실행력을 보장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소통 교육의 특성을 고려한 전술적 의사소통은 우다루프(OODA Loop)의 전술을 적용하는 것이다.

우다루프는 미공군 조종사였던 존 보이드가 고안한 전술로 관찰하고(Observe) 방향을 잡고(Orient) 결정하고(Decide) 행동하는(Act) 것이다. 안보영역에서 우다루프는 전쟁의 수단으로 모든 부대와 무기체계들을 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결함으로써 첨단 군사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정보수집 수단과 지휘통제체계, 장거리 정밀유도무기가 결합하여 효과중심-신속결정을 통해 전장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다.[16]

우다루프 전술을 적용한 의사소통은 행위의 순환주기를 최소화하여 짧은 시간 안에 의사결정과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우다루프는 다음과 같은 단계를 지니고 있다.[17]



(그림 5) 우다루프(OODA Loop)의 모형

관찰은 전술적 의사소통의 행위에서 인식에 필요한 방법이다. 변화된 상황에 대한 작은 정보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달라진 상황에서 주요한 요인들을 파악하는 것이다. 주요한 요인의 정확한 파악은 적합한 문제해결의 기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인과 참여자가 지닌 인식의 간극을 객관적인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대화의 주도권을 유지하게 한다.

방향은 전술적 의사소통의 행위에서 이해 및 배려에 필요한 방법이다. 관찰을 통한 자료의 분석에서 의사소통의 참여자와 대화를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발견하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자극발화와 대응발화를 상기하고 유의미한 발화와 무의미한 발화 구별해서 대화가 문제해결의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설정하는 것이다.

결정은 전술적 의사소통에서 행위의 전단계로 대화의 흐름을 문제해결과 관련된 주제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상황분석과 참여자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바탕으로 신속히 주제와 관련된 구체적 해결방안을 결정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응하여 명확한 주제를 결정하는 것은 참여자의 문제인식을 확장시킨다. 인식의 확장은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는 교두보로써 빠른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전제 조건이다.

행동은 전술적 의사소통에서 행위의 단계로 공동의 행동까지 실천하는 것이다. 주제를 전개시키는 과정에서 수신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목적을 참여자에게 알맞은 것으로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단기간에 목적달성인 행동까지 나아가는 것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대화는 변화하는 상황에 대하여 신속히 파악하여 주도권을 확보하고 문제해결의 방향을 잡아 주제를 결정한다. 이는 자발적 동의를 유도하

며 의사결정과 행동까지 나아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의사소통은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단계를 통합하고 의사결정의 시간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대화는 의사소통 참여들 간에 이해를 도모하고 다른 집단에 비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우다루프 전술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단계를 통합하며 순환주기의 최소화한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의사소통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데 속도의 경쟁력을 획득하며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3. 부사관과의 전술적 의사소통 교육의 구성과 방안

3.1 전술적 말하기 교육의 구성

말하기는 발화자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언어적·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청자에게 변화를 주기 위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이다. 말하기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사고의 과정이자 의미 형성을 위한 역동적인 과정이다.[18]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은 글쓰기 교육이 증시되고 있으며 말하기 교육은 교육과정에서 크게 주목되거나 연구된 것이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부사관과의 말하기 교육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장에서 효과적인 임무 수행과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교육이다. 부사관과의 교육 과정은 한정된 의사소통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의사소통의 말하기 교육은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술적 의사소통 교육으로 구성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규칙을 준수하고 분석적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내적 의사소통과 의사소통을 통해 통합적 사고 능력을 배양하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인 의사소통으로 구성된다. 내적 의사소통은 세계를 지각하는 것, 정보를 획득하는 것, 의미를 창조하는 것, 의사소통의 규칙을 배우고 규칙을 준수하며 사용하는 것으로 개인 내부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이다. 내적 의사소통 교육은 말하기 규칙과 상황정보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대인 의사소통은 2인

이상의 사람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로 행위의 목적이 다양하다.[19]

전술적 의사소통은 내적 의사소통과 대인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신속한 의사소통과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으로 실행된다. 신속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규합된 정보에 대한 분석적 판단과 문제에 대한 빠른 의사결정을 위한 교육으로 나누어진다.

정보에 대한 분석적 판단은 말하기를 구성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요소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한다. 이는 상대방과의 관계 측면에서 전개되는 상황의 변화를 감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에 해당한다. 이는 조건의 배경, 배경에 대한 심리적 대응, 대화의 목적과 결과, 정보의 형태와 내용, 대화의 논조와 태도, 전달경로와 말의 형태, 상호작용의 규범과 의미해석의 규범, 발화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또한 대화가 이루어지는 현황에 대한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환경에 대한 분석은 대화를 유지하는 조건들을 객관화하는 것이며 이는 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이다.

대화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정해진 시간에 행위의 실천이라는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다. 대화의 환경적 요인은 목적에 따른 일상성, 반응의 확인을 위한 대면성, 상대방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을 적용하는 개별성, 의사소통의 정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는 비형식성, 발화자와 수신자의 역할 교대, 모든 활동이 신속한 의사소통이나 결정으로 귀결되는 주제와의 결속이다. 주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환경 요인에 대한 분석은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을 내리고 최단기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기본적인 토대가 된다.

3.2 우다루프(OODA Loop) 전술의 말하기 교육방안

말하기는 이론보다는 학생들의 실습이 강화되어야만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따라서 말하기 교과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습 중심의 수업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20] 전술적 의사소통의 실습을 위해서는 학생들을 분석적 요인의 숫자를 넘어서는 6-10명으로 팀을 구성한다.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가장 작은 집단으로 환경적 요인을 적절히 분배하여 분석할 수 있는 인원과 내부적 의사소통이 빠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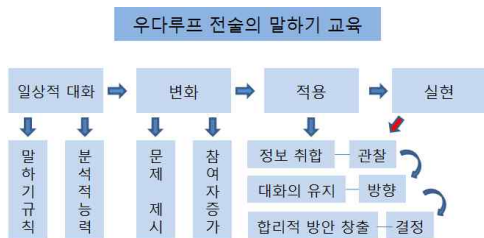
의사결정으로 나올 수 있는 최적의 인원을 구성한다.

각 팀이 정한 주제에 대하여 발표하는 것을 먼저 실습한다. 특정 주제에 대한 각 팀의 발표가 지나고 팀의 내부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면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을 실행한다. 수업에 참여한 피교육자의 경쟁을 유발할 수 있는 구도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의사결정을 객관적으로 제시하도록 한다. 인원과 팀 구성에 자율성을 보장하고 피교육자에게 동일한 주제를 부여하여 최단시간 내에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전제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만족시키는 구성원과 팀에게 가장 우수한 점수를 부여한다. 온라인 교육을 이용하여 의사결정을 제시하거나 의사결정이 나온 시간을 적시하는 검증 방안을 마련한다. 우다루프 말하기의 실습방안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표 1> 우다루프 말하기 실습방안

주제	역대 부사관과 학생들의 연락망 개선
조건	1) 연락망 누락 비율이 전년도 대비 10%이상 감소
	2) 데이터화 된 수치로 제시할 것
	3) 해결방안을 최초로 제시하는 팀이 우승

이러한 경쟁적 구도에서 각 팀이 의사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효율성을 재고하게 된다. 의사소통의 실제의 활동에서 적용되는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는 변화, 적용, 실현이라는 3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도식화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 단계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는 전술적 의사소통이 지닌 폐회로의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는 말하기 규칙을 기반으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실습하는 것이다.

변화는 대화의 상황을 임의적으로 변화시키는 단계이다. 이 단계는 변화된 상황을 제시하여 팀이 문제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경하고 효율적인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팀의 경계를 제거하여 인원수의 제한을 풀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도 가능하도록 의사소통 참여자를 증가시키고 다원적 차원에서 의사소통이 일어나도록 한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는 실습이 중요한 교과인 만큼 말하기 전 과정을 아우를 수 있도록 담당교수의 수업 계획과 시간 안배가 필요하다. 각 팀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에 대한 보고와 적절한 피드백이 요구되며 학생인원이 많은 경우, 적절한 피드백을 위한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적용의 단계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를 적용하는 것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단계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진행된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효과가 크다. 관찰은 문제에 대한 전제조건과 환경적 요인에 대한 분석과 경쟁적 관계에 있는 다른 팀들의 변화를 객관적 정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의사소통 구성원과 환경적 요인의 변화에 대하여 정보를 취합하고 참여자들 사이에 지닌 인식의 차이를 좁혀 구성원들 사이의 이해를 도모한다.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던 객관적 정보를 구별하고 정보를 해석하여 대화의 방향성을 유지한다. 결정은 대화의 방향성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결정하고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변화된 환경에 대응한 합리적인 방안을 창출하는 것으로 실현의 구체적 방안까지 모색하는 것이다.

실현의 단계는 도출된 해결방안을 실행함에 있어 도출되는 각 문제에 부딪힐 경우, 개별적인 문제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용의 단계로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최초의 해결방안과 연계하여 최대한 빨리 실행하는 것이다. 도출 문제에 대하여 객관적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순화의 주기는 2~3회 내로 한정되고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결정된 해결방안의 우수한 사례는 직접 말하기를 통해 발표할 수 있는 기

회를 마련하여 피교육자 모두에게 전파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은 대화하는 과정과 의사결정의 모습을 객관화하여 보는 것이며 이를 통해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해결방안을 빠르게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이다. 교수자가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촬영한 동영상을 학교의 교육관련 온라인 시스템에 같은 곳에 게시한 후 의사소통과 관련된 교수자와 수강학생 및 특정학과 등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공개하여 피드백을 받는 형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은 부사관과 학생들이 졸업 후 마주하는 대화의 상황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통한 실천적 행동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 현재 의사소통에서 요구되는 실행력을 전제로 문제와 기회를 발견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방안을 교육하는 것이다. 부사관과의 전문적 말하기 교육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는 사적 대화를 표방하고 있으나 과제 중심 대화, 업무적 의사소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사관과 학생들은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을 통하여 대인관계는 물론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실행력을 겸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 론

지금까지 전문대학 부사관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해 전문적 의사소통의 개념을 규정하고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 전문적 의사소통은 크게 목적-행위-목적달성이라는 단계를 지니고 있으며 목적 달성을 위해 행위의 반복이 일어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복되는 행위의 단계는 인식-이해-배려-행위의 단계를 지니고 있다.

효과적인 전문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행위의 반복을 최소화하여 의사소통을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적합한 우다루프 전술의 대화를 제시하였다. 우다루프 전술은 관찰-방향-결정-행동의 단계를 지니

고 있으며 행위의 반복을 최소화함으로써 새로운 문제와 기회를 발견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는 것이다. 우다루프 전술의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단계를 통합하여 순화주기를 최소화한 의사결정을 도출한다. 의사소통 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바탕으로 이를 실천하는데 속도의 경쟁력을 획득하며 의사결정과 행동의 주도권을 확보한다.

마지막으로 우다루프 전술의 의사소통을 부사관과의 말하기 교육에 적용한 교육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은 변화된 상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는 구조를 설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우다루프 전술의 말하기 교육은 변화-적용-실현의 단계를 통해 행위의 반복을 최소화하고 빠른 의사결정과 실행력을 겸비하는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하게 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실제적인 교육에 적용하여 효과의 검증 등을 통한 실증연구결과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향후,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말하기 교육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유용태, “안보환경에 적합한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방안 연구”, 융합보안 16권3호, p. 50, 2016.
- [2] 박문상·박계홍, “부사관의 역할 정체성, 모호성, 갈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개발연구 제15권 3호, p. 41, 2012.
- [3] 송준화·천명희, “국가안보에 적합한 인력 양성을 위한 부사관 후보생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 연구”, 융합보안 제14권 제6호, 2014.
- [4] 유용태, “NCS 기반 역량 교육을 적용한 해군부사관과의 리더십 교육방안 연구 - 프로젝트와 프레젠테이션 교육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제16권 제6호, 2016.
- [5] 정희중, ‘전략, 전술 그리고 작전’, 북갤러리, p. 31, 2009.
- [6]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33064200>, 2017.09.23. 15:32.
- [7] 노정남, “의사소통전략 지도를 통한 중학생 영어

말하기 능력 향상 방안”,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p. 9-11, 2016.

- [8] <http://www.proposalsheet.com/wp-content/uploads/2017/01/communication-strategy-template-a3a548b648357b7745ff254ed115f92a.jpg> 2017.09.23. 16:40.
- [9] 김규원·서민교·이정운, “프랜차이즈 기업의 그린 리더십과 환경매력도가 환경마케팅 전략과 전술 및 환경성과에 미치는 영향”, 프랜차이즈경영연구 제8권 제1호, pp. 21-22, 2017. 참조.
- [10] 김은혜, “말하기 평가에 구현된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의사소통 전략 양상”, 국어교육학 연구 제40집, p. 362, 2011.
- [11] 허선익, ‘국어교육을 위한 말하기의 기본개념’, 경진, pp. 32-33, 2012.
- [12] 김미령, ‘의사소통 속의 대응발화’, 세종, p. 9, 2006.
- [13] 이창덕, “국어교육과 대화분석 : 대화분석 이론과 연구방법의 국어 교육 적용 모색”, 한국초등국어교육 14호, pp. 49-50, 1998.
- [14] 이수진·윤석화·변국도, “리더의 영향력 전술이 구성원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3권 제3호, pp. 48-52. 2016.
- [15] 이창덕, “한국 가족의 의사소통 문제와 개선 방안” 화법연구 제9권, pp. 354-355, 2006.
- [16] 이승호, “미래전쟁 양상 변화와 지상군 역할”, 전략연구 제67호, pp. 121-123, 2015.
- [17] 에이미 윌킨스 저, 김고명 역, ‘크리에이터 코드’, 비즈니스북스, p. 125, 2015.
- [18] 전은주, ‘말하기 듣기 교육론’, 박이정, pp. 57-63, 1999.
- [19] 박재현, ‘국어교육을 위한 의사소통 이론’, 사회평론, 2013. 참조.
- [20] 김현정, “대학 ‘말하기’ 교과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교양교육연구 제7권 제3호, p. 612, 2013.

[저자 소개]



유 용 태 (Yu, Yong-tae)

2001년 2월 학사
2003년 8월 석사
2013년 8월 박사
email : yong0208@hanmail.net